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2020년 7월 3일(금) ---(음력 5월 13일)--- Пятница 3 июля 2020г. № 26 (116893)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7월 1일 러시아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294 투표소에서.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7월 2일 코로나19 감염 확진 사실 876건

사할린주에서 7월 2일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의 새로운 확진자가 32명이 발생했다.

그중 14명은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 병동 방문자이고 12명은 확진자와 접촉, 6명은 완치 퇴원한 자와 접촉으로 감염되었다.

이렇게 하여 사할린지에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876명, 405명은 회복하여 퇴원했으며 현재 471명이 치료를 받는 중이다.

최근에 급성호흡기 감염으로 진료를 찾은 사람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7월 1일에는 코르사코브에서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졌다.

거의 모든 사업과 활동이 재개된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은 더욱더 지켜야 한다.

사할린 및 쿠릴 열도 투표자 74.8%가 개헌에 찬성

지난 1일(수) 러시아 헌법 개정을 위한 투표가 이뤄진 가운데 사할린주는 러시아 헌법 개정을 지지했다. 총 투표율은 67% 이상(37만8000명 중 25만4486명)이었고 이번 개헌안 투표에 투표소를 방문거나 집에서 투표한 유권자 중 74.8%(18만9000명)가 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으로, 사할린 지역별 투표는 찬표가 4분의 3, 반대표가 4분의 1로 나뉘었다. 예외적으로 쿠릴 열도에서, 세베로쿠릴스크는 찬반이 반반으로 갈렸고, 유즈노쿠릴스크는 92% 가까이 개헌안의 중요성을 믿고 찬성표를 던졌다. 쿠릴스크에서는 86%가 개헌안에 찬성했다. 사할린 지역 중심지인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72.9%가 개헌에 찬성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73%에 달했다.

사할린주에서는 449개 투표소가 선거를 위해 준비되었다. 이 중 상설투표소 309개소, 사할린 방문자들을 위한 임시 투표소 8개소, 항해 중인 선박에 132개소가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러시아 소비자권리보호감독청의 방역 권고사항이 시행되었다.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개소들을 소독 처리하며, 위원회는 방역 보호 장비를 사용했다. 투표자들에게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와 장갑)와 투표 용지에 기표할 일회용 펜이 제공되었다.

6월 25일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었다. 사할린 선거위원회의 빅토리아 체르카스와 위원장은 "집에서도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의 참여의식을 높이 사고 싶다. 선박에서도 투표소로 갈 수 없는 약 4천 명이 투표했다. 투표소에서 사회원이 준비한 감독관들 1500명이 활동하여 선거위원회의 가정방문 투표

에도 감독관들이 동행했다. 투표소에는 경찰 병력 600여 명이 지키며 24시간 경비를 썼다"고 했다.

모든 투표소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었고 33개의 종합 개표기가 작동되었다.

사할린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이나 확진자들도 개헌 투표에 장애가 없었다"고 밝혔고 빅토리아 체르카스와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격리병동이나 병원에서 직원들과 의료진의 도움으로 임시 투표소가 개설되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받는 돌린스크와 코르사코브 격리병동에서도 합법적으로 투표소가 마련되어 투표가 이뤄져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하도록 했고 격리 병동에서는 선거위원들이 특별 방역 및 보호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자택 격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거위원들이 방문해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2일 사할린주 선거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투표 결과를 심의하는 중 대부분은 투표 과정 중 위반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반면 선거위원회 위원인 파벨 아시호민 사할린주 공산당 제 1비서가 특별한 의견을 내놓아 이것을 중앙선거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헌법 개정 방법이 옳지 않으며 개정 사항들에 대한 투표를 따로 해야 하고, 사전 투표에 기존 투표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는 점'이었다.

7월2일 러시아 개헌 투표의 개표 현황을 보면 유권자의 총 투표율은 67.97%, 개헌 찬표가 77.72%, 개헌 반대표가 21.27%로 나타났다.

(본사기자)

사할린주, 대규모 행사 개최 허용

사할린 주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 확산 방지조치 명령에 대한 개정을 가했다.

6월26일 (주 정부 포털사이트 게시) 방역 조치안 65호에는 주내 폐쇄된 공간에서 대규모 행사 진행이 허용돼 있다. 이전에는 50명 이하의 사람들만이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을 허용했다. 이런 모임의 참가자들은 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호흡기 보호를 위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새로운 시행책은 사할린에 내도한 사람들을 위한 자가격리와 의무격리 기간을 축소시키는 규정이다. 이전에 14일간의 엄격한 규정 조치들 대신에 '국가 연방 위생 및 방역 감독청이 집행기관 공직자의 명령으로 규정하는 기한' 채택안이 시행되고 있다.

주내에서는 2주 전에 사할린에 입도하는 사람들의 격리 기간이 축소된다고 공지했지만 아직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 소비자권리보호청은 2주간의 기간을 '만료 기간'으로 한정된 문서들을 발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관의 업무는 앞으로 자체 결정이 더 자유로워지고 '코로나19 진단 검사와 단기간 격리'라는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만성 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연령층에 대한 자가격리에 대한 권고 효력은 계속되는 가운데 7월10일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의 감염 확산 방지와 관련된 통제는 사할린에서 3월 말에 시행됐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폐쇄가 시작되었다. 5월 중순 이후 통제는 신속하게 완화되었고 전국에서 이러한 활동 전개에 사할린주는 선두에서 있었다.

통제의 완화는 연방 정부가 5월 9일 전승절 열병식 개최 연기에 동의하고, 전 러시아 헌법 개정안 표결 진행의 날짜를 발표하면서 급격해졌다.

물담배 흡연실과 어린이 놀이방은 7월6일까지 폐쇄가 지속된다.

'사할린-1' 석유가스 프로젝트 25주년 기념

25년 전 러시아 연방 정부와 사할린주 정부와 국제 컨소시엄 간 '사할린-1' 프로젝트에 대한 생산분배협정이 체결됐다. 컨소시엄 구성원은 '로스넉치' 석유회사와 미국 '엑손모빌'(Exxon Mobil), 인도의 'ONGC 비데쉬(Videsh)' 유한회사, 일본 '소데코(SODECO)' 등이다. '사할린-1'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외국인들의 직접투자가 이뤄지는 최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냉대기후의 조건 속에 매장된 탄화수소 개발을 위해 선진 기술을 적용한 사례이다.

사할린-1'프로젝트의 실현은 해마다 탁월한 운영 성과를 보여주었다. 석유 및 천연액화

가스 누적 생산량은 1억2천5백만 톤을 넘었고 극동지역의 소비자들에게 280억m³를 공급했다.

지역 생산의 석유는 사할린의 '차이보' 해안 종합처리 시설로 보내어져 송유관을 통해 '데카리스' 터미널로 옮겨지며 소비자에게 운반될 탱크에 실린다. 이 기획이 실현되는 동안 '소콜'이라는 최고급의 상호를 단 1200개 이상의 석유 탱크가 운송되었다.

'사할린-1'프로젝트의 실현으로 러시아 연방의 균형 잡힌 예산이 확보되고 있으며, 지금은 사할린주(5천억 루블리 이상)를 포함해 1조 2천억 루블리 이상이라고 '로스넉치'가 전했다.

'시간이 없는 자는 자신에 대해 아는 것도 적다'

70회의 생신을 맞이한 장태호 작사가와의 인터뷰

- 고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선 최근에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엇으로 숨쉬고, 어떤 기쁨과 슬픔을 느끼시는지요?

- 관심과 축하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70주년에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밭을 내려다보고 지금 어떠한지 주위를 돌아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연령적 형편상 모든 사할린 주민들처럼 자기격리 속에 살고 있죠. 일상의 생활에 평범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매일, 해마다 그저 노력하는 게 익숙해서 여기서 인간으로서의 기쁨을 누립니다. 휴식을 위한 해외 여행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외국에 여러 번 갔었지만 보통 사업 또는 건강관리차 가는 방편이었어요. 시 창작은 저의 취미입니다.

무엇으로 숨쉬냐면 바쁜 하루를 온 마음으로 숨을 쉬려고 하고, 아침 일출부터 바쁜 일상의 낮과 저녁의 일몰로 숨을 쉬고 있어요.

아들이 사는 모습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장남 제니스(40대)는 중년의 남자이고 막내 민호(초등학생)는 삶의 여러 면을 이 제서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들과 삶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게 기쁩니다.

슬픔은 별로 느끼지 않아요. 슬픔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큼니다. 특히 부모가 된 지금에서야 어머니와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장태호 선생은 돌도 없는 효자로 알려져 있음. - 기자주). 나와 자손들에게서 대를 이어가는,

보이지 않는, 삶의 탄탄한 연대감이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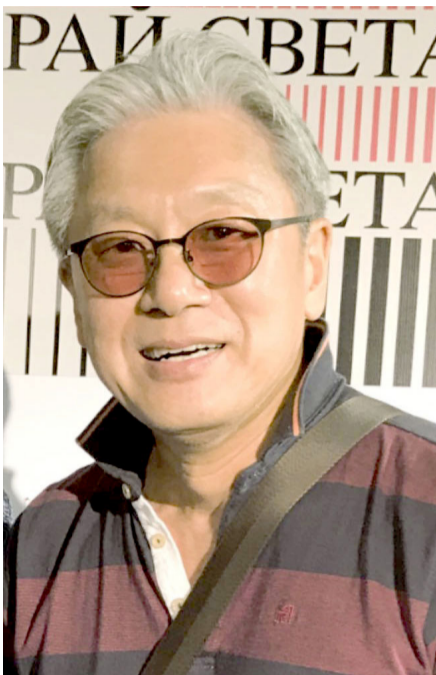
- 최근 10년간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소개하자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쓰신 글은 있으신지?

저는 아마추어 작사가이기 때문에 모든 가사가 저에게 의미가 깊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저를 알게 되고, 사할린 주민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최근 <간호사>란 노래를 세르게이 웨르비츠키 작곡가와 함께 썼습니다. 이 노래는 이번 대조국전쟁 전승일 75주년 앞두고 소개되었습니다. 한 번 텔레비전에서 대조국전쟁 참가자인 간호사에 대해 보여주었는데 키가 작고, 호리호리한 이 여성이 부상을 당한 병사 100여 명을 전장에서 직접 구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훈장과 메달로 가슴이 꽉 찬 이 여성은 평범한 일을 대하듯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글은 정말 몇 시간 만에 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승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전승일은 러시아 민족의 역사 문화의 코드라고 봅니다.

-선생님께서 사할린에 대한 노래의 작사가로 이름을 알리셨지만 사할린 한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멀고도 가까운 한국>이란 노래를 쓰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할린 한인 역사의 상징적인 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노래를 한국어로 불렀으면



하는 소원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뭐, 특별히 노래를 지키려 하기보다 노래는 널리 불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 노래에 우리 부모님의 아픈 마음의 일부라도 담겨 있다면 노래에 대한 운명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세들이 듣게 되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노래를 한국어로 듣고 싶습니다.

- 요즘 사할린 한인 사회 계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1세 사할린 한인들의 직계가 족(2세)이 영주귀국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선생님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영주 귀국하실 마음은 있으신지요.

- 영주귀국 가능 문제는 날카로운 문제입니다. 저는 2000년대 초기에는 <정의복권재단>의 김복곤 지도자와 함께 2세의 영주귀국, 일본 은행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우편 저금 되돌려 받아야

한다는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문제들이 여러 이유로 미결되었고,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이 문제를 재추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주귀국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사할린 땅에 뿌리를 너무 깊이 내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고국의 부름으로 밤에 잠을 잘 못잡니다. (장태호 작사가의 아버지는 한국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사할린에서 돌아가셨지만 유해는 한국으로 모셨다. 장태호 씨는 해마다 부모님의 묘지를 찾고 있다. - 기자 주.)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선생님께서 부모님에 대한 에세이를 쓰실 마음이 있으신지요.

- 사실 이 계획은 많이 진전이 안 됐어요. 바쁜 일상이 이 창작의 큰 방해가 됩니다. 노래 작사의 템포와는 달리 에세이 쓰는 것은 긴 몰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 건 계획일 뿐입니다.

- 오늘을 사시는 선생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 예전처럼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자신에 대해 아는 것도 적다고 하죠. 운명이란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모든 소원과 기획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배순신기자)

장태호: 자신에 대하여

나는 1950년에 우글레고르스크에서 출생,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돌린스크에서 보냈다. 초등 지식은 조선학교에서 받았고, 돌린스크 제1일반학교를 졸업했다. 남한 출신인나의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나에게 다음과 같은 특성을 심어주었다. 바로 지식에 대한 열망과 시작하는 일에 대한 책임이다. 1967년에 학교를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 노위시비르스크로 갔다. 처음엔 노위시비르스크 공과 건설대학에 입학하여 1년 공부하다가 1968년에 노위시비르스크 전자기술대학으로 전학하고 1972년에 졸업했다. 전공은 자동제어시스템이다. 다음은 공장에서 일했고 군대 복무도 했다. 연구를 위해 1976년에 노위시비르스크 전자기술대학(자동제어시스템과)으로 돌아와 대학원을 마치고 조교수를 역임했다. 1983년에 이학(기술학) 준박사 학위를 따냈고 1985년에 유즈노사할린스크로 이주,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현 사할린국립대)에서 교수. 1990-1992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의회 의원. 1992년에 개인 사업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 경력 사항 외에도 자신만의 작은 창작의 뿌리를 내리게 한, 무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었다. 조선학교 다닐 때 예술과 미술을 익히게 되었다. 중학교, 대학과 공장에서도 계속 이러한 <창의성>을 키우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대학에서 공부할 때 대학 벽신문도 만들고, 대학 재즈 오케스트라에서 드럼을 쳤고, KVN(즐겁고 재치 있는 젊은이들의 클럽 - 일종의 개그클럽)에서 활동해 몹시 바빴다. 대학을 마치고 연구를 시작하자 이 활동을 포기하게 되었다. 다만 자신을 위해서 창작하고 싶은 마음이 남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노래의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2000년도에 사할린 현지에서 사할린에 대한 노래의 색깔과 수준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때 바로 옛날 돌린스크에서 보낸 겨울을 생각했고, 2001년에 제2회 <사할린에 노래를> 경연대회에 사할린에 대한 첫 노래(작곡가 아.크라스노와) 가사를 썼다. 이로써 나는 작사가로서 데뷔를 했고 아.크라스노와, 웨.졸로투힌, 웨.킨지노브, 아. 도로셴코, 에스.웨르비츠키 등 사할린의 작곡가들과 일해왔다. 편곡하는 데는 전 사할린 주민 엠.추구노브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사할린 아트 사이트에서)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어린왕자의 큰 마음>이라는 행사가 열려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 탄생 120주년 기념 및 청년의 날을 기리는 문학 행사로 <어린 왕자의 큰 마음>이 6월 27일 사할린주 일반과학 도서관에서 열렸다. 도서관 앞마당에서는 감동의 음악 연주도 열렸다. 연회는 '비올라' 바이올린 앙상블이 예브게니 크를라토프의 곡 '기다림'을 연주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날 공연은 사할린 필하모니의 솔리스트 안나 드부레첸스카야와 '퓨얼 사운드(순수한 소리)'팝 보컬 스튜디오의 엘레나 탈랄라예와가 이어갔다. 이들이 부른 노래들은 우화적인 주제 - <부드러움>, <어린 왕자>, <신비한 나라>, <총천연색 꿈>-들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도서관의 직원들은 관객들에게 프랑스 작가의 일생을 이야기하고, '어린왕자'를 각색해 연기했다.

도서관에서 진행된 활동교실의 참가자들은 생텍쥐페리의 탄생일을 기리며 자기 작품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뇌로 그림 그리는 기법(상상하여 자유롭게 이미지를 떠올려 그리는 기법)으로 사할린 사람들은 어린 왕자를 묘사했다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вели акцию «Большое сердце Маленького принца»

Литературная акция «Большое сердце Маленького принца», приуроченная ко Дню молодежи и к 12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Антуана де Сент-Экзюпери, про-

шла 27 июн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библиотеке.

В сквере СахОУНБ звучали трогательные музыкальные номера. Открыл вечер ансамбль скрипачей «Виола» с композицией Евгения Крылатова «Ожидание». Концерт продолжили солистк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Анна Двуреченская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эстрадной вокальной студии «Pure Sound» Елена Талалаева. Они исполнили песни, темы которых перекликаются с сюжетом аллегорической сказки: «Нежность», «Маленький принц», «Чудесная страна», «Цветные сны».

Сотрудники библиотеки рассказали собравшимся о биографии французского автора, выступили с инсценировкой из «Маленького принца».

На вечеру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свои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и мастер-класса в СахОУНБ, посвященного дню рождения Антуана де Сент-Экзюпери. С помощью техники правополушарного рисования сахалинцы изобразили Маленького принц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библиотеки.

사할린에서 미식 축제 출발

사할린 관광안내센터와 '사쿠라'사할린 음식점·요리사연합회가 사할린만의 축제인 <사할린의 맛 느끼기>미식 마라톤을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했다.

여름 내내 그리고 9월 말까지 미식 마라톤의 참가자들인 급식시설들은 사할린만의 특별메뉴를 선보이는 가운데 사할린의 전통 조리법에 따라 현지 생산품으로 요리를 마련한다.

식탁의 주요 식재는 게, 가리비, 새우, 광어, 문어, 연어, 날치알, 성게알이고 곁들이는 메뉴로 고사리류, 머위, 산마늘, 해조류, 김치가 식탁에 오른다.

"많은 지역들이 자체 전통요리에 자부심을 느끼는데 우

리 사할린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에게 사할린의 음식을 얘기하겠냐는 생각을 했다. 우리의 요리를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 오는 손님들은 독특하다고 한다. 우리의 요리는 러시아, 한국, 일본의 요리가 혼합되어 역사가 형성되었다. 보너스 차원에서 다음 주부터 각 사할린 주민들은 Gosakhalin인스타그램 추첨에 참가하여 사할린의 음식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사할린 관광안내센터 올렉 로마노브 소장이 전했다.

전체 미식 마라톤의 참가 명단에는 7개 사할린 급식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고 코르사코브에도 있다. 사할린의 카페와 음식점의 축제에는 수십 개의 메뉴가 포함돼 있다. 이 축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할린 관광안내센터 사이트에서 알 수 있고, 전체 메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Гастрофестиваль начался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ий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и островная ассоциация рестораторов и кулинаров «Сакура» приготовили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региона ориги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Почувствуй вкус Сахалина».

Всё лето и до конца сентября заведения общепита — участники гастрономарафона — предлагают гостям специальное меню сахалинской кухни. Блюда готовятся из местных продуктов по традиционным рецептам островитян. Короли стола — краб, гребешок, креветка, палтус, осьминог, лососевые, красная икра и икра морского ежа. Дополняют кулина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папоротник, черемша, лопух, морская капуста, ким-чи.

(8면에 계속)

사할린주 한인회, 2/4 분기 사업보고와 사할린동포 특별법 관련 논의

지난 28일(일)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강당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운영위원 29명 중 회의에 20명이 참가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 의정에는 2020년 2/4분기 주 한인협회의 사업보고, 사할린동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설명과 기타 의제가 떠올랐다.

첫 두 의제에 대해서는 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보고했다.

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관련 격리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할린 한인들을 위한 단체는 정관 목표에 따른 활동을 계속 해왔다. 주 한인협회는 지방한인회들과 힘을 모아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19 감염병과의 투쟁을 돕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고, 3월 말에 성금 3900달러(295750루블리)는 한국적십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그 이후도 사할린 주민들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왔다. 또한 4월에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사할린주 취약계층의 주민들을 위해 식품세트 100개를 준비해 전달했다.

5월-6월에는 75세 이상의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해 500여 개 식품세트를 나눠드렸는데 이에 주 한인협회의 청년부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봉사에 나선 가운데 각 가정을 방문하여 식품세트를 전달했다.

6월 중순에 사할린주 한인협회에서 니콜라이 위쉬넵스키 사할린 역사학자의 마카로브구역 한인들에 대한 <싱그러운 아침의 나라의 북쪽>책에 대한 소규모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앞으로 한국어로 번역하여 한글판은 올 9월에 출판할 예정이다. 주 한인회에서는 한글판 책 출판기념회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며 이 행사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박순옥 회장이 강조했다.

작년부터 주 한인협회는 한국 국제의료보건의재단(이사장 추무진)과 함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난 6월에는 프로그램 일환으로 홈스크 구역의 프라우다 마을과 체호브마을, 그리고 홈스크시 어르신들을 찾아가 의료 상담, 치매 예방활동, 간담회와 쌀 전달식을 가졌다. 프로그램 시행에 주 한인협회의 청년부(회장 이 세르게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로써 사업보고를 마친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의제로 넘어갔다. 박 회장은 현재 사할린 한인2세들이 직계가족으로 영주귀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는 상태라고 지적



하고 주 한인협회 측에서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을 사할린 한인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으로 여러 제안과 요청사항을 보냈다고 했다.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2세들은 한국 정부가 이들의 영주귀국 지원을 하는 요건으로서 직계가족이 부모들을 잘 모셔야 하는 데 있다고 박 회장은 강조하고 지원 정착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초기 단계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박회장이 말했다. 그리고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겠다고 하며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2세의 영주귀국 관련 명단 작성 등도 하지 않겠다고 박 회장은 강력하게 말했다. 영주귀국 관련 사업을 사할린 측에서는 앞으로 분명히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담당할 거라고 강조했다.

이날 마카로브 한인회 고영순 회장은 영주귀국 희망자들을 나이순으로 귀국시켜야 한다고 발언했고 주 한인협회 김홍지 고문은 특별법에 관련된 사할린한인사를 상기시켰다.

유감스럽게도 이날 회의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과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강복숙 회장이 참석하지 않아 박순옥 회장은 이 시한인회와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강조하며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총회에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 사업 지원에 30억 루블리

러시아 재무부는 사할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루블리 이상을 배당했다. 연방 예산으로부터의 보조금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위해 책정되었다. 지난 4월 13,856명의 근로자를 위해 3,833명의 기업인들이 보조금을 받았고 5월에는 3026 사업체에 10685명의 직원이 보조금을 받았다. 오는 7월 1일까지는 5월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직원 1인당 1만2130 루블리의 무상 보조금이 제공된다. 자금은 여러 중소기업의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다. 팬데믹 시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산업 분야에서 영업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연방 자금 지급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기업이 채무 이행이나 기업 개편,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안 되며, 세금 및 보험료 체납금(

올해 3월 1일 기준 3천 루블리 이상)이 있는 사업체는 연방 지원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외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그 달에 직원 고용상태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 수는 전월 지표로부터 최소한 90%가 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국세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은 전자 메일, 납세자 개인 계정, 우편 등 여러 편리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러시아 연방 재무부 홈페이지에는 디지털 지도를 게시해 러시아 행정지역들의 지원금 현황을 알아볼 수 있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지원금 수령자의 수와 지원금 총지급액을 알 수 있다고 사할린주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상상속취

십 년째 금주 중이다. 예전에 술 안 마시는 사람을 보면 무슨 재미로 살까 궁금했는데 해보니 그다지 나쁘지 않다. 술자리를 일찍 떠날 때는 아쉽다가 다음날 눈을 떠서 어젯밤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지금쯤 숙취에 시달릴 걸 생각하며 크크대는 재미도 있다.

지금이라도 다시 음주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술보다는 일을 택했다. 술을 끊으니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 남들 평생 마실 만큼은 마셨고 금주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장점이 훨씬 많은데도 삶이 그저 잔잔해진 것 같아 문득문득 아쉽기는 하다.

이 년 전, 전주에서 작업을 했는데 이상기후 때문에 대구보다 더 더운 여름을 보냈다. 에어컨 없는 작업실이어서 더위를 이겨낼 방법을 찾다가 무알콜 맥주를 떠올렸다. 정확히 말하면 맥주가 아니라 맥주맛 탄산음료지만 맛도, 색도, 거품도 맥주랑 비슷하니 대만족이다.

알콜중독치료 모임에서는 무알콜 맥주를 악마의 음료처럼 생각하던데 다행히 나는 무알콜 맥주에서 맥주로 넘어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무알콜 맥주 스무 가지 정도를 모두 마셔보고 가장 맛있는 녀석을 찾아냈다. 그 뒤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방에 챙겨가서 맥주인 척 신나게 마셔댄다. 처음에는 하나면 됐는데 이것도 술처럼 양이 점점 늘어 지금은 좋은 자리라면 네다섯 개 정도는 필요하다.

좋아하는 친구 작가와 편집자랑 지리산 둘레길을 걷다가 점심때부터 술자리를 가졌다. 나도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었지만 다음날을 생각해야 했다. 차표를 자꾸 바꾸면서까지 서울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막차에 밀어 넣고 집에 돌아와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 머리가 쩡하면서 가벼운 숙취가 느껴져 무심코 "어제 너무 많이 마셨나?" 생각했는데 따져보니 나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상상임신은 들어봤지만 상상숙취는 처음이었다. 몇 년 만에 맛 본 숙취가 더없이 반갑고 즐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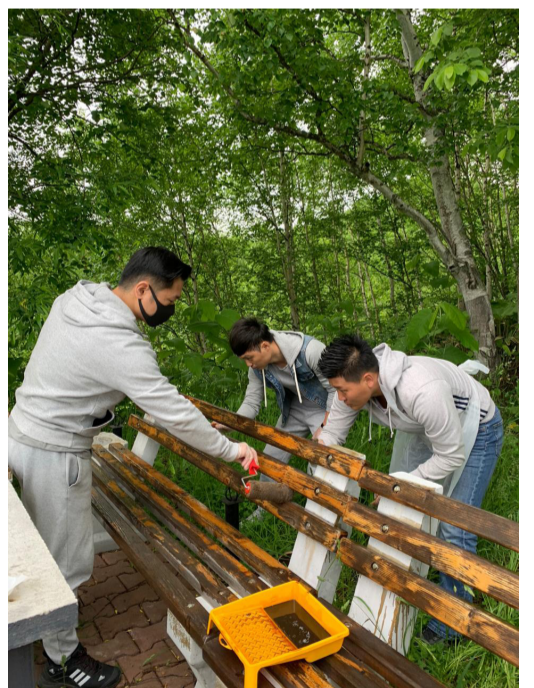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술보다 더 사람을 취하게 하는 분위기가 생긴다. 무알콜 맥주로도 취한 듯 즐길 수 있는 경지가 되었다면 조지훈 시인의 주도 18 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궁금하다.

광주에서 김남중



주 한인협회 청년들,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 현장에서 봉사

지난 27일(토) 사할린주 한인협회의 청년부 회원들이 한인 1세들을 위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러 홈스크시로 가는 길에 27인 한인 피살 희생자 추념비 현장에 잠깐 들러 봉사작업을 벌였다. 포자르스코예촌 근처,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56킬로미터에 떨어진 작은 언덕에 세워진 이 추념비는 홈스크 지역 행정부와 홈스크 한인회가 관리하고 하고 있지만 추념비 현장에 있는 나무의자(벤치)이 색을 잃어 박순옥 회장이 청년부에게 도색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날 이 세르게이 청년회 회장과 오 블라지미르, 김 아르쥘 회원이 나무의자 3개를 도색했다.



참고: 1945년 8월 9일 소련군이 남사할린을 공격하자 일본인들은 한인인들이 소련군에 협조한다는 의심으로 여러 곳에서 한인들을 학살하였다.

8월 20일 홈스크에 소련군이 상륙하면서 일본인들은 재향군인회와 청년단 일부만 남기고 철수하였는데 잔류 일본인들은 한인들을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포자르스코예(그당시 미주호 촌)에 살던 여성 3명과 6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27명을 조직적으로 살해하고 여러 곳에 나눠 몰래 매장하였다. 1946년에 소련군 당국이 조사하여 사건의 전모와 살해 가담자들을 밝혀냈다. 학살에 가담한 18명 중 7명에게 사형선고를 했고, 11명에게는 징역 10년의 형량이 선고되었다.

1994년에 사할린 한인들이 포자르스코예 근처 추념비를 건립.

(배순신 기자) (사진: 청년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философская по содержанию...»

В газете «Сэ корё синмун» уже публиковалась короткая статья студентки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Мун Вон Ён.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девушка успешно выдержала семестровые экзамены и с новыми знаниями возвращается к себе на родину. Предлагаем читателя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ебольшим сочинением студентки о том, какие произведения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омогают ей изучать русский язык.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С прошлого семестра я изучала русские литератур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их авторов, а также русские города и разные литературные места в них. В начале семестра я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однокурсниками читала биографии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например, Александра Пушкина, Михаила Лермонтова и Ивана Тургенева. Произведения этих людей очень известные, с ними, конечно, знакомы почти все русские.

В этом семестре я читала много рассказов, сказок, а также фрагментов из раз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Так, у А.П. Чехова есть рассказ «Злой мальчик». В нём написано о младшем брате девушки. Мальчик Коля не даёт развиваться любовным отношениям своей сестры и мужчины, который хочет на ней жениться. Я знаю, что Чехов – один из самых важных писа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Мне было интересно читать и изучать его творчество.

А вот рассказ Бориса Житкова «На льдине» – это история о том, как отец и его сын вместе ловят рыбу. После богатого улова радость сменяется страхом. Рыбаков на оторванной льдине уносит в море. Но заканчивается рассказ благополучно.

Ещё я читала произведение Аркадия Гайдара. Он популярный советский писатель и журналист прошлого века. Из повести «Тимур и его команда»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с отрывком «Друзья». Главной героине Лиде очень нужна была помощь. Друг девочки Тимур помог ей: он отвёз на мотоцикле своего брата Лиду из деревни в Москву, поэтому девочка смогла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 отцом (её отец приехал домой только н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Или вот ещё одно произведение. Это «Сказка о рыбаке и рыбке» А.С. Пушкина. Русские дети знают эту чудесную притчу. Добрый и спокойный старик поймал необыкновенную рыбку. Но главный герой жил вместе с жадной старухой, которая, в конце концов, осталась, как и прежде, со своим корытом. Раньше я слышала, что Александр Пушкин – это великий русский поэт и прозаик, у него есть много книг. Детально с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Пушкина я познакоми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Изучала я 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в прозе Ивана Тургенева «Воробей». Это очень простая история о любви, которая есть у птиц: маленький воробей защищает своего птенца от охотничьей собаки.

А ещё я узнала о казахском поэте Абае, прочитав сказку «Три розы». Абай – это имя Ибрагим Кунанбаева. В сказке главный герой полюбил розу, которая из-за сильного чувства муж-

чины смогла стать живой женщиной. Абай нашёл свою возлюбленную среди других роз.

Или вот рассказ педагога Константина Ушинского «Четыре желания». Это короткая история о мальчике, который говорит отцу, что любит все четыре времени года. Мальчик сначала желает, чтобы всегда была зима, а потом хочет весну, а позже – лето и, конечно, осень.

Ещё я узнала о похищении картины Леонардо да Винчи «Джоконда». Какая необычная история! Её я знала и раньше, но только в России я услышала песню Виктора Чайки «Мона Лиза». Это тоже интересно! Кстати, мое русское имя тоже означает чайку. И ещё у А.П. Чехова есть пьеса с таким названием.

Или вот ещё. В этом семестре я читала историю о бородах и усах, поэтому я узнала популярные мужские образы в прошлом. Кстати, бороды и усы были у многих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учше понять разн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я разглядывала и описывала литературные иллюстрации, фильмы, мультфильмы и слушала песни. Особенно, когда я читала стихотворение Самуила Маршак «Почта», мне было удобно смотреть ещё и мультфильм по этому произведению.

Также я изучала русские города, с которыми связано творчество рус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поэтов: Москва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ли вот Арбат: у него есть литературное настоящее, прошлое и, надеюсь, будущее. Когда я читала о городах, то я, словно сама, поехала в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этим местам.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думать о разных уголках и изучать их прошлое.

На самом деле,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читаю, то часто не понимаю многих слов, потому что я ведь только недавно учу русский язык. Мне бывает трудно. Но, продолжая заниматься, я чаще понимаю содержание произведений. Всё это прочитав, я теперь знаю, как это интересно!

А ещё в прошлом году я смотрела спектакль «Вишнёвый сад» А.П. Чехова с однокурсниками в театре. И теперь я стала больше интересоваться изучением рус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Я знаю, почему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такая известная и великая, и почему я изучаю всё это. В будущем я хочу читать много произведений, потому что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философская по содержанию.

Мун Вон Ён, студентк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Деятельность РООСК и вопросы по спец. закону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обсудили на правлении

28 июн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правлен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з 29 членов правления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о 20 человек. На заседании были заслушаны отчет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РООСК за 2 квартал 2020 года,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я по проекту спец.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обоим вопросам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Докладывая о проделанной работе за 2-ой квартал,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оводилась работа согласно уставным целям. В частности, общими силами отделений РООСК, была собрана и отправлена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ая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3900 долларов для организации Красный Крест Рес. Корея. Подготовлено и передано в волонтерский центр 100 продуктовых наборов для самых пострадавши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готовили более пятисот продуктовых наборов, с помощью членов молодежного отдела РООСК подарки были доставлены адресатам.

Проведена презентация книги Н.В. Вишневецкого «Северная частица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 корейских жителях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на сентябрь месяц ожидается выход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резент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случаю выхода книг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будут приурочены к 30-летию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По медицинской программе «Здоровье»,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с министерств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Фондом РК, в июне этого года уже провед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в селах Правда и Чехов, а также в г. Холмск.

По второму вопросу, с разъяснениями о наиболее спорных вопросах статей спец.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выступила также Пак Сун Ок, подчеркнув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что «сейчас, как никогда,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нужно проявить единство мнений и действий, исключив возможность компрометирующих отзывов и подрыва репутации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Она сообщила, что пока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е выйдут акты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и т.д.), регулирующие Специ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ООСК не будут давать комментарии по спец. закону. Она напомнила, что в адрес парламента РК были направлены пожелания, учитывающие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го поколения. А также сообщила, что в России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язанная с отправкой на ПМЖ в РК согласно Закону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только РООСК.

Председатель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г. Макарова Ко Ен Сун обратилась с вопросом о возрасте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МЖ, с ответом выступил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Ким Хон Ди, отметив, что необходимо дождаться вступления в силу данного закона, после 1 января 2021 года, так как бюджет 2020 го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л вопрос о ПМЖ. Он также напомнил об истории продвижения спец.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Наш корр.)

Возвращаясь к поставленной точке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Азиат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Слож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в тему, которую оставил некоторое время назад, тем более по такой сложной и порой быстроменяющейся, как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Сеулом. Возможно постоянные читатели газеты уже перестали удивляться тому, что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добрые помыслы и тесные взаимные объятия в одночасье могут смениться на гнев, угрозы и бряцанье оружием. Казалось бы, мировая пандемия законсервирует теплоту недавней атмосферы оптимизма и перспективы сближения двух Корей. Ан нет. Мир стал свидетелем очередной остр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по обе стороны 38-ой параллели. Многие не понимают почему отношения Севера и Юга стали вновь похожи на туго натянутую струну или точнее сказать тетиву, в которой не первобытные стрелы, а всеразрушающие ядерные ракеты и все остальное суперсовременное оружие. Могу успокоить, что до ново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не дойдет. Уверен также, что нынешний кризис – это лишь очередной виток в многолетней спирал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закручивающейся то вверх, то вниз. Повторю уже сказанное мною сотни раз –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и неизбежно! Все пройдет и это тоже – нынешние угрожающие демарши Пхеньяна и опасность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пандемии... В очерке предпринята попытка разъяснения нынешней цепочки событий, поводов и причин резкого обострения в межкорейском диалоге.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первый тревожный сигнал из Пхеньяна был подан еще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Ким Чен Ын, впервые с 2013 года, не выступил с ново-

годним поздравлением. Если задуматься над вопросом «почему?», то напрашивается ответ, что в своем обращении к народу он должен был отметить достижения на пут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и и дальнейшие шаги по решению важнейших вопросов стран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Однако сказать ничего существенного для предновогодней речи не нашлось...

Второй звонок прозвучал, ког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вдруг исчез и не появлялся на публике с 11 апреля. Ким Чен Ын не присутствовал на торжествах по случаю годовщины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своего деда – «видехан Ким Ир Сен сурён донгчи» – «великого вождя Ким Ир Сена». 15 апреля – это священный день, который ежегодно отмечается с религиозным пиететом и в его связи с помпой проводится фестиваль «Апрельская весна». Все мировые таблоиды запестрели догадками по поводу отсутствия на торжествах внука «великого вождя».

Писали о нездоровом образе жизни, ожирении, зайдом курении, неудачной операции на сердце, бегстве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и самоизоляции (с куртизанками!) и даже о кончине, которую Пхеньян, якобы, держит в строжайшем секрете... Но все эти публикации оказались банальными «утками» падкой на сенсации прессы от откровенно желто-бульварной, до серьезных толстых ежедневных газет.

Могу ошибаться, но создается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с начала нового года до нового «явления» миру Ким Чен Ына в узком круг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элиты, происходило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или перераспределени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отношения Севера с Югом.

(Оконча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Войн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 должна повториться

Вечером 25 июня на авиабазе в Соннаме состоя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по случаю 70-й годовщины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оходившем под лозунгом «Салют героя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30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ветераны войны, члены их семе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мая важная часть церемонии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встрече останков 147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лдат, павших в годы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НДР. Накануне они были доставлены с Гавайских островов, где проходила процедура опознания в департаменте по делам военнопленных и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США. Эти останки были найдены в ходе раскопок в КНДР в 90-х годах, а затем переданы Севером американской стороне. Определены личности семи погибших. 21 июня на Гавайские острова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во главе с замминистра обороны РК Пак Чжэ Мином, которая приняла останки и 24 июня доставила их в РК. Помимо этого, почести воздали шести американским солдатам, чьи останки были найдены и опознаны в РК. Мун Чжэ Ин лично встречал процессию военных, несших останки. Он заявил: «Родина ни на мгновение не забывала вас. Это великая честь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дать все почести героям».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сказал, что не будут забыты погибшие воины из 22-х стран ООН, принимавших участие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нынешняя Корея была создан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ой, которая больше не должна повториться. Обращаясь к КНДР, Мун Чжэ Ин сказал, что Юг не намерен навязывать свою идеологию Северу, стремясь лишь найти путь совмест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редложив стать хорошими соседями, прежде чем начать обсуждение воссоединения,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Пхеньян сделать шаг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и показаны видео-послания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участвовавших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в том числе, президента США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день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Пхеньян не проводил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х митингов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Пхеньян воздерживается от проведения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х митингов в день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Ведущ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 том числе,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и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КНДР ничего не сообщают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До 2018 года в КНДР проводились массовые антиамериканские митинги, которые знаменовали собой день начала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25 июня. Они не проводились посл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го саммита 2018 года в Сингапуре, а также после аналогичного саммита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ингапуре, хотя он и оказался безрезультатным.

Исполнилось 4 года пребывания Ким Чен Ына на посту главы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Главна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Нодон синмун» посвятила практически весь номер за 29 июня четвёртой годовщине пребывания Ким Чен Ына на посту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В публикациях дана высокая оценка достижений лидера страны в укреплении военной мощи и экономики.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он уделяет первостепенное внимание народу и внутренней политике,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ется с военной угрозой. Ким Чен Ын стал руководителем КНДР после смерти его отца Ким Чен Ира в конце 2011 года. В 2016 году Верховное народное собрание КНДР назначило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новь созданного госсовета. Его отец Ким Чен Ир управлял страной, будуч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тета оборо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возглавили 17 постоянных комитет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возглавили 17 из 18 постоянн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первые за последние 35 лет практически вся власть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обрании сосредоточена в руках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В состоявшемся в понедельник пленарном заседании не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ппозиции. Вакантным остался пост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делам разведки, занять который можно только в случае достижения консенсуса. Ранее в тот же день конкурирующие политические партии не смогли договориться о том, как разделить посты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лючевых парламентских комитетов. Лидеры парламентских фракций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Ким Тхэ Нён и крупнейшей оппозиционной Объединённой партии будущего Чу Хо Ён не смогли решить данную проблему. Спикер парламента Пак Кён Сок сказал, что он, правящие и оппозиционные силы «окажутся перед судом народа и истории». «Основа депутата – это народ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нтересы, и ничто не должно быть важнее этого», - отметил он.

(RKI)

Возвращаясь к поставленной точке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профессор Ким Герман Николаевич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Азиат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и масштаб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артийной элите, произошедшие в начале третьей декады января, когда сменились 5 из 12 замов председателя ТПК. Ушел в отставку Ли Су Ён, отвечавший за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партии. Старейшего и опытного дипломата, главу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МИДа Ли Ён Хо заменили на бывшего военного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Ри Сон Гвона.

В феврале весь мир заговорил о китайском городе Ухань и неизвестном вирусе, который из локальной эпидемии как степной пожар разгорелся до планетарной пандемии, парализовавшей многие страны. Вначале февраля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закрыл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а день рождения Ким Чен Ира – отца нынешнего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стречали в медицинских масках. Казалось Covid19 мог бы сблизить Пхеньян и Сеул в борьбе против неожиданного бедствия, тем более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изначально показала эффективность предпринятых мер против массовой 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3-4 – ого марта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обменялись письмами, в которых выразили пожелания победы над коронавирусом. Казалось бы,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вером и Югом,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ногласия, сохраняют свою стабильность.

Однако по непонятным причинам обстановка начала резко ухудшаться, из Пхеньяна зазвучала острая критика политик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езидента, на Севере зазвучали залпы дальнбойной артиллерии и возобновились запуски ракет. Ни Сеул, ни Вашингтон не проявили резкой реакции на эти действия.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нынешнем обострении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явно просматриваются безответственные и деструктивные действ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еребежчиков, преуспевших в Южной Корее на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гражданско-активистской арене. Речь идет об избранных депутатах в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арламент бывших граждан КНДР Тхэ Ён Хо и Чи Сон Хо, заявивших о критическом, близком к летальному исходу, состоянии пропавшего из виду Ким Чен Ына. О смерт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они говорили с абсолютной уверенностью, но позже им пришлось принести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за свои безответственные заявления, точнее за выдачу желаемого за действительное. Не утихает громкая шумиха вокруг деятельности еще одного бывшег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беглеца - Пак Сан Хака и его группы «Борцы за свободную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которая в нарушен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о взаимном прекращении враждебной пропаганды (2018) забрасывала свою прежнюю родину сотнями тысяч листовок, однодолларовыми купюрами и флешками с разоблачениями правящего режима.

Пхеньян смотрел сквозь пальцы на простых тхальбукча (перебежчиков), которые оказавшись на Юге трудятся в поте лица, учатся и держат язык за зубами, но не прощают предателей, имевших на родине высокие должности, достаток и привилегии, но перебежав на Юг строивших свою карьеру давно известными «разоблачениями» и порой откровенным поливанием грязью членов семьи Кимов.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сегда бурно реагировала на каждый запуск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и требовала у Сеула прекращения этих враждебных акций. В ответ звучали оправдания о невозможности запретить в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стране подобного рода гражданские акции. Разумеется, это не устраивало Пхеньян, да вряд ли устроит любого человека, партнер которого постоянно нарушает условия сделки. Исследователи уже посчитали сколько раз и в каком году было запущено в сторону Севера водородных баллонов, количество листовок, объем «мор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в виде ненавистной «зелени» номиналом в один доллар США, упаковок шоколада, жвачек и в довесо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е DVD, флешки и буклеты. А впору подсчитывать убытки от таких неправомерных действий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активистов-тхальбукча. Московский кореевед К. Асмолов закономерно задается вопросом «откуда дровишки?», ведь все перечисленное «добро» стоит немалых денег.

Особенность нынешних листовок – их, мягко говоря, непристойное содержание, Асмолов назвал «порнографическими» в части критики женщин семьи Кимов. Неудивительно, что последние запуски вызвали



ярость и гнев Ким Ё Чжон, обещавшей торпедировать вс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и прервать все контакты с Сеулом. 9 июня все каналы связи между Пхеньяном и Сеулом была разорваны. 16 июн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взорвали совместный офис связи в Кэсонской специа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й зоне. Власти КНДР заявили, что готовится ввод армейски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в ДМЗ, заново у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демонтированные комплексы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готовились к запуску в Южную Корею 12 миллионов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х листовок. При этом Пхеньян предостерег Белый дом не вмешиваться в межкорейские дела. Такая воинственная риторика и напористые действ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ызвала тревогу в сеульских коридорах власти, что ситуация может выйти из-под контроля.

Голубой дворец пошел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на попятную. Он строго запретил группе Пак приезжать в пограничную зону и потребовал под страхом наказания прекратить запуски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Пожертвовать пришлось и министром объединения Ким Ён Чхолом, ушедшем со своего поста с «посыпанием пепла на голову». Н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роявленные Сеулом примирительные жесты, Пхеньян продолжал нагнетать обстановку и не высказывал желания возобновить межкорейский диалог. Мир вновь оказался в тревожном ожидании новой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холодной или горячей.

Однако, как это уже не раз случалось, Пхеньян неожиданно сделал резкий разворот в своих речах в адрес Сеула. Причем, на смену жесткой Ким Ё Чжон, обремененную на сегодня полномочиями второго человека в государстве и ответственную за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ришел сам Ким Чен Ын.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ЦТАК), он вдруг отложил план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против Юга,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й Генштабом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После этого громкого сигнала «отбой» пошло попятное движение. В течение дн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демонтировали все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и, установленные вдоль ДМЗ и готовые для начала радио-войны.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еб-сайтах бесследно исчезли ругательные статьи в адрес Сеул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с облегчением вздохнули, но пребывают в недоумении. Почему и для чего Пхеньян совершает такие зигзаги в своей политике? Н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 Чжэ Ина в лиц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ъединения не преминуло поприветствовать эти действия северян, инспирированные решением Кима.

Аналитики отмечают, что нагнетание обстановки проводила Ким Ё Чжон и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за все ее действия и за то, что произошло по ее указке,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несет она. Ким Чен Ын остался, образно говоря, «белым и пушистым»... Судя по всему, это подтверждение тому, с чего я начинал очерк. Мы имеем дело с игрой Пхеньяна в «good man» и «bad woman». Глубоко заблуждаются те, кто думает, что брат и сестра могут иметь разные мнения по тому, как строить отношения с Югом. Они неразрывное целое и рука об руку рулят своей страной.

Что касается причин нынешнего неожиданного камбэга Пхеньяна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эксперты узрели руку Пекина. Прозвучали предположения, что Си Цзиньпин убедил своего младшего коллегу не лезть на рожон и плавно спустить на тормозах опасное движение. Не знаю так ли это, но наверняка Китаю была не по нраву опасная возня под его боком. Ему и без корейских заморочек хватает проблем в торговой войне с Америкой, борьбой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спадом экономики и т.п.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87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активну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Почти 75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в регионе одобрили изменения в Конституцию страны. Свою гражданскую позицию на островах высказали около 68 процентов избирателей.

–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поправкам в Конституцию – событи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масштаба. И для нашей страны 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ыло важным, чтобы в нем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граждан. Мы голосовали не только за Россию, но и за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оэтому члены избирательных комиссий добрались до всех удаленных районов и территорий, организовав досрочное голосование для 6 тысяч жителей. В целом, абсолютное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голосовавших на островах – 75 процентов – поддержали изменения в основной закон страны,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шло легитимно, а легитимность – это фактор доверия. Доверие – главное, что у нас есть, поскольку – это основа для стаби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бществ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голосовали за социальные гарантии, каче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у, неприкосновенность границ и другие важнейшие нормы. Все это, по его словам, дает уверенность в завтрашнем дне и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авильность действий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 разви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Вместе со всей страной мы сделали исторический выбор.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т которого зависит будущее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аждого из нас. И я благодарю всех з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и неравнодушие к судьбе Родины, – обратился к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губернатор. – Поправки абсолютно созвучны тому, что мы уже делаем. И, безусловно, эта работ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Голосование по поправкам в Конституц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о с соблюдением всех норм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в рамках правового поля. На участках работало бол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многие из которых представляли молодежь. Члены различ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отметили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организации голосования.

Всег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ли 449 участков для голосования. Наибольшую активность показали жители Курильского и Южно-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ов, Ногликского 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кругов.

Социаль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становится банковской

С её помощью островитяне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70 лет могут бесплат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ам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а люди от 55 – посещать учреждения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а также получать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от 1,5 до 10 процентов). Кроме того, на карту можно перечислять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и оплачивать любые покупки, в том числе – бесконтактным способом.

Презентация «Единой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внедряемой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остоялась сегодн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Её провел зампред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цифровое и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а.

– Глава области ставит задачу –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Для этого мы создаем современные и удобные решения. Теперь не нужно брать с собой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и социальный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Их возможности объединяет в себе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А её обладателями смогут стать около 160 тысяч человек, – рассказал Вячеслав Аленьков.

Сегодня «Еди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вручили 9 островитянам – серебряным волонтерам, заслуженным учителям РФ и ветеранам труда. В их числе – руководитель кружка рукоделия «Сударушка» Галина Волосович.

– Я активный участник «Сахалинского долголетия».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у нас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концерты. Я ею, конечно же, пользуюсь. Была, к примеру, на выступлении Сосо Павлиашвили.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 поделилась сахалинка. –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неслась к выпуску новой карты –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очень удобно.

– Очень удоб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одной картой вместо трех. Теперь не нужно переживать, что забыла карту скидок или проездной билет, – добавила жительница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Галина Ким – Я с сен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использую социальную карту сахалинца и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это выгодно и удобно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скидки в магазинах города до 10%.

Пластиковая карта работает на базе платежной системы «Мир». При этом выпускается и обслуживается бесплатно. Получить её можно, написав заявление в банке.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личные данные финансов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ередаст в органы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а карта имеет банковское приложение. На нее можно перечислять меры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енсию и даже зарплату,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модернизации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Елена Степанова.

Причем банки смогут предложить держателям кар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ривилегии – повышенный кэшбек и скидки от партнер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к проекту

подключился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ий Банк, который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принадлежит Центральному банку России.

– Этот проект очень важен в силу своей социальной значимости. Для пенсионеров у нас уже действуют несколько предложений – начисляем проценты на остаток на карту, а также возвращаем на них 5 процентов потраченных средств во всех аптеках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Эти возможност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обладателям «Единой карты сахалинца», – рассказала директор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Банк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ья Богославец.

Кроме того,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же договорилось о выпуске карты с «Почта банком», банком «Итуруп» и «Россельхозбанком».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соглашения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будут подписаны и с другими банкам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няты ограничения на численность посетителей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вступил в силу ряд изменений к требованиям, введенным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Согласно указу губернатор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опускается проведение спортивных, зрелищных, публичных и иных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количе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и площади размещения. При этом организаторы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ть социальное дистанцирование и наличие средств защиты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маски и респираторы). Напомним, ранее масс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были ограничены пребыванием не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Следующее нововведение касается обязательной обсервации для прибывающих в регион. Указом введена формулировка «на срок,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предписании должностного лица органа, осуществляющего федераль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ий надзор».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кументально подтвержд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находиться в изоляции в среднем 5 дней, при прохождении всех обязательных тестов. При этом медицинское наблюдение за каждым пассажиром воздушного и морского транспорта у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на две недели.

Гражданам старше 65 лет, а также страдающим хрон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предписано соблюдать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до 10 июля. Это позволит им обратиться за оформлением больничного листа.

Сахалинский «Сад памяти» продолжают сажать осенью

Международная акция, приуроченная к 75-лети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прошла с 18 марта по 22 июн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ешили продолжить высаживать молодые деревья и кустарники.

Осенью саженцы появятся на южных Курилах, в Ани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Охин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и других районах. Всего в лесном фонде и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высадить более 4 тысяч деревьев и кустарников. Рекордсменом обещает стать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Здесь, на 1 гектаре земель лесного фонда, собираются высадить 3 тысячи молодых елочек.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амках акции «Сад памят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появилось 6,4 тысячи сеянцев и саженцев хвойных и лиственных пород, а также кустарников на площади 3,6 гектара. Посадки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в черте городов и сел, а также в лесном фонде.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Поддержали эколог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трудники лесничества, арендаторы лесных участков, волонтеры, ветераны войны, школьник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В «Саду памяти» каждое дерево – символ благодарности павшим героям.

Около 3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получил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цифровое развитие школ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оступил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14 пилотных регионов, где на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будут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ую базу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1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уже приобрели более 100 комплектов цифр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уда входя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комплексы,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е устройства, ноутбуки для ребят и педагог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закупили около 4 тысяч ноутбуков: 3030 – для учеников, 606 – для управленцев школ, 202 – для учителей.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еще 36 комплектов современного интерактив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мпьютерная техника должна поступить в островные школы к началу учебного года. Это позволит внедрить последние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мимо того, на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ой IT-инфраструктуры 48 школ получили системы управл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доступа, систем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источники бесперебойного питания, оптимизаторы энергопотребления, коммутаторы, точки беспроводного доступа Wi-

Fi и друг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 эти цели было выделено более 74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Такая техника позволит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доступ в Интернет и усилить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защищенность школ.

Модель современной и безопасной цифрово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реды планируется внедрить во всех школах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к 2024 году. Напомним, что нацпроект призван обеспечить глобальную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ь россий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вхождение России в число ведущих стран по качеству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уководителей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выявле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перспективных и ответственных управленцев,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м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В 2020 году в рамках конкурса «Лучшие руководители РФ» планируют поощрить 2,5 тысячи финалистов. Они будут включены в кадровые резервы, повысят квалификацию на совреме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для управленцев, получат поощрительные гранты в размере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пеци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поощрения и поддержк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ля более 10 тысяч полуфиналистов.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несколько этапов: регистрация, заполнение анкет, оформл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й деловой визитки, корректировка контента на основе рекомендаций группы сопровождения, экспертно-аналитический этап, всероссийский публичный финал электронных деловых визиток, публикации в СМИ и отраслевых справочниках.

Кажд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задействует новые механизмы для развит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компетенций участников 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но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роста.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ся руководители из разных сфер деятельности, удовлетворяющие требованиям: не старше 60 лет, стаж руководящей работы не менее 2-х лет, наличие россий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17 июня 2020 года по 29 января 2021 года через электронные сервисы сайта <http://xn--b1aebcldblgh2abw8afd8ds.xn--p1ai/lenta/news/category=1#fbscroll0>.

До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компенсируют сахалинским предприятиям при переводе авто на газ

На переоснащение каждой машины из этой суммы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до 150 тысяч рублей. Финансовую помощь также окажут сервисным центрам,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установкой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 им возместят 70% затрат на покупку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этого техники (не более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разработаны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Чтобы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льготами, руководителям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с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ю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ходе встречи бизнесменов,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частных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 специалистам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энергетики.

– На Сахалине действует беспрецедентный пакет мер поддержки бизнеса, занимающегося развитием газомото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а также автомобилистов, использующих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мы – лидеры.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о и по стране, – за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департамента газификации министерства Данила Вертопрахов. – К примеру,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переоборудовать авто и получить полную компенсацию. А сельхозпроизводителям и организациям, задействованным в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озвращают 70-90 процентов средств, потраченных на переоснащение транспорта.

Компенсацию также получат покупатели передвижных газовых заправок – 90 процентов от стоимости техники. Кстати, сейчас для Сахалина изготавливают сразу три мобильных станции. Их за счет муниципальных средств приобретут для Невель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ого и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ов.

По мнению Артура Рахматова, начальника отдела по управлению территорией Ново-Александровск, создание газозаправочной сети будет стимулирова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машин. Выгоды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голубого топлива он описал журналистам после совещания.

– Раньше мой автомобиль расходовал 20 литров бензина на 100 километров. Поэтому в течение года на топливо уходило около 300 тысяч рублей. При переходе на газ эта сумма снизилась более чем в 2 раза, – подчеркнул Артур Рахматов.

Отметим, до конца года будет открыта вторая стационарная газовая заправ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на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заправлятьс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топливом тем, кто едет в сторону Корсакова, Анивы, Холмска или Невельска.

Напомним, перевод транспорта на газ – один из инструментов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иници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국민 박호경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자연을 대출하면
미래는 파산합니다.**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Многие регионы гордятся своей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хней, и мы подумали, кому, как не сахалинцам, рассказать о своей? Наша кухня уникальна, что отмечают гости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и стран. Она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исторически как микс русской, корейской и японской кухонь. В качестве бонуса со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и у каждого жителя региона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инстаграм-розыгрыше Gosakhalin и выиграть сертификат на бесплатную дегустацию островных блюд,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го туристско-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Олег Романов.

Всего в списке участников гастрономарафона — семь заведений Сахалина.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ходит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а также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 фестивальное меню ресторанов и кафе Сахалина вошли десятки блюд. Узнать подробнее о фестивале, а также скачать полное меню можно на сайте СТИЦ,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ПСО.

해외 전문가에게 러시아 입국 허용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코로나바이러스19 대유행의 여건 속에 국내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취업 허가를 받고 고급 자격증을 지닌 외국 전문가들이 이제 러시아로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메두사' 신문이 보도했다. 외국인들은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내무부로 연방 행정기관이 송달하는 특별 명단을 근거로 단기 입국이 허용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시행되던 입국 제한 정책의 개정 결정은 러시아와 해외 기업, 사업 연합회,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에 입수된 것들을 심의한 결과로 이뤄졌다."고 러시아 연방 정부가 전했다. 코로나 19의 확산 위협으로 3월 말에 국경을 폐쇄한 이후 러시아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려 하거나 친척 중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외국인들에게만 입국이 허용되었다.

В Россию разрешили приезжать иностр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ам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подписал распоряжение, смягчающе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въезд в страну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Теперь в Россию могут попас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меющие разрешение на работу, пишет издание «Медуз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таким иностранцам разрешен однократный въезд на основании особого списка, который должны направить в ФСБ и МВД федеральны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шение внести изменения в действующий режим ограничений на въезд, введенных из-з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ринято по итогам рассмотрения поступивших 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ращений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миссий, деловых ассоциаций, россий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компаний», — сообща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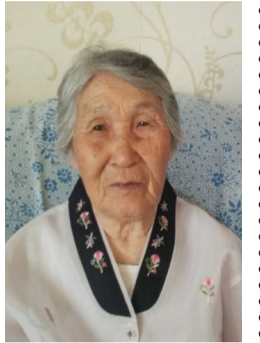
После закрытия в конце мар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границ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разрешало въезд в страну тольк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которые намеревались пройти лечение в российс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организациях, и тех, кому необходимо позаботиться о заболевших родственниках.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돌린스크에 계시는 라 토미코 님께 드리는 축하

Поздравляем с 95-летним юбилеем!

Почти век жизни позади, поэтому хотелось бы пожелать много, много здоровья, сил и спокойствия, не сдаваться и еще много лет прожить для себя и встретить 100-летие в полном здравии!



Дети, внуки, правнуки

95회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무병장수하시고 손주들의 사랑을 듬뿍받으시면서 행복한 여생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자녀, 손주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Реклама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